

소이넷, AI 실행 가속기 시장 공략...처리속도 3배 이상 빨라져

스타트업 소이넷이 기존 머신러닝 엔진 대비 처리 속도는 3배 이상 빠르면서 사용 메모리는 9분의 1 이상 낮추는 독자 기술을 앞세워 인공지능(AI) 실행 가속기 시장 공략에 팔을 걷어 붙였다. AI 실행 가속기는 이미 학습된 추론 모델을 서비스 단계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머신러닝 엔진이다.

회사는 현재 구글·엔비디아·인텔 등 AI 반도체(FPGA·ASIC) 기반의 AI 실행 가속기가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다투는 구도 속에서 SW 기반의 AI 실행 가속기로 틈새 시장 개척에 나선다.

소이넷(대표 김용호·박정우)은 AI 실행 가속기 플랫폼 '소이넷 2.0' 버전을 출시하고 삼성동 코엑스에서 19일 열리는 '2018 ICT 이노페스타'에 참가해 부스를 통해 AI 실행 가속기를 소개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사는 GPGPU 기술인 쿠다(CUDA) 기반의 '소이넷 1.0' 버전을 지난 6월 선보인 데 이어 이후 엔비디아 텐서 RT를 지원하면서 성능을 50% 이상 향상한 '소이넷 2.0' 버전을 단기간에

ICT 이노페스타 참가... '2.0 버전' 소개 학습기능 빼고 추론모델로만 빠른 가속 가성비·범용성 앞세워 새로운 수요 기대

내 또 다시 내놓았다.

'소이넷 2.0'은 벤치마킹(YOLOv3/GTX 1080TI) 결과에서 학습된 추론 모델 테스트 속도를 텐서플로, 파이토치, 카페 등 기존 머신러닝 엔진에 비해 3배 이상 가속화시킨다. 이는 기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와 달리 학습 기능을 제거하고 추론 기능만 빠른 속도로 가속 수행하기 때문이다.

AI 추론 모델을 실행할 때 학습 모델에 사용된 역전파 알고리즘 같은 무거운 모듈이 메모리를 점유하지 않아 메모리 사용량이 9분의 1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텐서플로, 파이토치 등 기존 머신러닝 엔진은 학습 기능과 실행 기능을 통합한 프레임워크 구조여서

고성능 서버를 필요로 한다.

소이넷은 적지 않은 개발비와 장시간이 들어가는 AI 반도체 기반의 AI 실행 가속기 시장에서 소이넷 2.0으로 AI 응용에플리케이션 개발 생산성을 제고하고 HW 투자 가성비와 AI 모델 범용성 문제를 해결, 새로운 수요를 개척할 계획이다.

소이넷은 이미지 탐지·분류를 위해 비전검사 방식에서 딥러닝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추론 모델 실행 속도 지연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략한다. 속도와 모델 앙상블(복수조합)로 인한 메모리 투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연어 처리 분야로도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임동원 상무는 "소이넷은 1MB 정도로 매우 가벼운 엔진이며 학습된 추론모델 실행을 위한 5개의 간단한 API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 대형 SI 회사와 기존 IT 인력을 활용한 AI 응용 서비스 개발을 위한 모델로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민기자 smahn@etnews.com



배종상 와우소프트 대표(오른쪽)과 신재식 키코시스템즈 대표가 일본 도쿄에 위치한 키코시스템즈 본사에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와우소프트, 출력물 보안 앞세워 日 진출

SI업체 키코시스템즈와 대리점 계약 프린트체이서·페이퍼-엑스 출시키로

와우소프트가 출력물 보안솔루션을 앞세워 일본시장을 공략한다.

출력물 보안 전문기업 와우소프트(대표 배종상)는 일본 시스템통합(SI) 업체 키코시스템즈와 일본 판매 및 현지화를 위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와우소프트는 프린트체이서(Print Chaser)와 페이퍼-엑스(Paper-X)를 일본에 출시한다. 이 솔루션은 출력 사전 통제, 결재 및 사후 추적 가능하다. 문서 출력부터 폐기까지 현황 로그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와우소프트는 국내 출력물 보안 시장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사 솔루션을 일본 전역에서 판매해 우수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키코시스템즈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솔루션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다. 보험, 은행, 증권, 공공시스템 및 제조시스템 분야를 전문으로 최적의 IT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키코시스템즈는 와우소프트 솔루션의 성공적 일본 시장 진출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반 상황에 협력,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와우소프트 프린트체이서는 애플리케이션 및 프린터 드라이버에 제약 없이 회사 내 사용자 컴퓨터 출력물에 워터마크 삽입이 가능하다. 출력로그 및 원본이미지를 저장 관리해 중요정보유출을 사전 감시, 사용량 제어까지 할 수 있는 출력물 통합 관리 솔루션이다. 페이퍼-엑스는 중요 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지정기간 내 실제 폐기됐는지 등을 관리해 출력물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권상희기자 shkwn@etnews.com

휴먼토크, 현대차 中법인에 문서보안 '다뷰' 공급

읽기모드만 제공...기술유출 원천 차단 새해 실리콘밸리 거점 영어권 시장 개척

문서보안 전문기업 휴먼토크(대표 주용호)가 최근 현대자동차 중국법인에 문서보안용 솔루션 '다뷰(DAVU) 엔터프라이즈'를 성공적으로 납품했다. 읽기모드만 가능해 산업스파이로부터 첨단기술 유출방지를 원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중국법인은 자동차산업 특성상 외부 유출이 금지된 최첨단 설계도면 등 기술보안문서를 상당수 보관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한 번에 따라잡기 위한 산업스파이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다뷰를 도입해 핵심기술 유출을 원천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뷰는 내부 직원간 문서를 공유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PC에 어떠한 임시 파일도 생성하지 않고, 읽기 모드만 가능하다. 도면관리·전자결재·전자문서 등 그룹웨어 게시판에 첨부한 파일에 대한 저장·인쇄·캡처를 방지한다. 별도 응용프로그램 없이 250여가지 포맷 문서를 클릭 한 번만으로 볼 수 있어 도면관리·전자결재·그룹웨어에 적합하다. 사용자가 문서열람 후 창을 닫으면 메모리에서 휘발돼 어떠한 캐시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뷰는 1~2초 만에 첫 페이지부터 빠른 속도로 실시간으로 변환해 보여준다. 서버에 실시간 캐시기능이 있어 다음 사용자부터는 변환하지 않고 HTTP 서비스로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대용량일수록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자체 엔진으로 문서 내 불필요한 내용을 완

벽하게 필터링한다. 강력한 압축 기술로 변환 파일 크기를 매우 작게 만들어 신속성·편의성을 높였다. 하드웨어(HW) 스펙을 낮춰줌으로써 고객사 구매 부담도 줄였다.

주용호 휴먼토크 대표는 "오랜 고객사인 현대차그룹은 다뷰로 문서보안용 통합부어를 표준화하며 업무통합성, 편의성, 신속성, 경제성 등 효과와 성능을 검증했다"면서 "작년 12월 현대차 중국법인과 협상을 시작한 이래 한 달에 걸쳐 설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대차 중국법인의 수많은 협력사또한 다뷰를 통해 문서보안을 해야 하는 만큼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실리콘밸리를 거점으로 영어권 국가 문서보안 통합부어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비스텔, 새해 1월 세미콘코리아 참가... '적응형 인텔리전스 솔루션' 소개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DFD' 중점 시어터존 만들어 기술 등 체험무대도

비스텔은 다음달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규모 반도체산업전시회 세미콘코리아에 참가한다. 단독부스를 마련하고 스마트 제조를 실현하기 위한 적응형 인텔리전스(AI: Adaptive Intelligence) 솔루션을 소개한다.

비스텔은 공정자동화솔루션 분야 국내 선도 기업으로 품질·수율·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제조공정 지속적 최적화에 기여했다. 비스텔은 세미콘코리아 전시부스에서 '보다 스마트한 제조를 위한 적응형 인텔리전스'를 테마로 고객을 맞이한다.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미콘웨스트 전시회에서 '베스트오브웨스트'(Best of West) 상을 수상한 자사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솔루션 DFD(Dynamic Fault Detection)가 중점 소개된다. DFD는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추적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결함을 사전 감지하고 품질

과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어터존(Theatre zone)을 구성해 비스텔 최신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갖춰 진행될 예정이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비스텔 기술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기술 동향 및 차세대반도체 기술 발전방향을 포함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세미콘코리아는 최신 반도체 재료, 장비 및 관련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술 심포지엄·마켓세미나·구매상담회 등이 열려 업계 최신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권상희기자

아드반테스트, 스핀 주입형 자기메모리 시연 성공

日 도호쿠대학서 성능 평가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장비업체 아드반테스트(대표 요시다 요시아키)는 일본 도호쿠대학 테츠오 엔도 교수 연구팀이 이끄는 CIES와 공동으로 차세대 메모리인 '스핀 주입형 자기메모리(STT-MRAM)'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산학연계 공동 프로젝트는 STT-MRAM 비휘발성 동작메모리 연구개발과 양산 기술 확보를 목표로 CIES가 개발한 STT-MRAM(128Mb)를 아드반테스트의 테스트로 성능 평가를 진행했다. 연구 실험 결과에서 고속작동 STT-MRAM

이 기존 반도체 IC에 사용된 전압과 비교되는 1.2V 전압에서 14나노초에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 SRAM과 동일하게 1.3V 전압에서 10나노초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드반테스트 측은 "실형 결과를 통해 대용량의 STT-MRAM이 고속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STT-MRAM 대량생산에 필수 요소인 고속 메모리 성능평가 기술 효과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아드반테스트 측은 또 "도호쿠대학 CIES와 외부 자기장 애플리케이션 장치가 포함된 새로운 STT-MRAM 메모리 테스트를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한다"고 덧붙였다. 인수민기자

www.watchtek.co.kr

한 눈에 들어오는 IT운영!!

쉽고, 편한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누구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와치텍 뿐입니다

와치텍으로 제대로 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수준관리 서비스 채감관리 서비스 포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관리 클라우드관리 자동화관리 워크플로우 엔진 대시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버관리 네트워크관리 트래픽관리 WAS관리 DBMS관리 IP관리 백업관리 접근제어관리 스토리지관리 시설관리 로그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관리 자산관리
<h4>서비스관리</h4> <p>체계적인 서비스 관리를 통해 비즈니스 수준까지 높아집니다.</p>	<h4>운영관리</h4> <p>표준화된 업무흐름에 맞춘 운영으로 더욱 쉽고 편리합니다.</p>	<h4>인프라관리</h4> <p>IT 자원의 장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안정된 환경을 제공합니다.</p>	<h4>자산관리</h4> <p>점점 많아지는 IT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비용을 절감합니다.</p>

WATCHTEK (주)와치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대영빌딩 14층
<http://www.watchtek.co.kr> 02)783-1334